

사회인 야구, 또 하나의 '가을잔치'...다국적팀 첫 출전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9월 3일 광주일고야구장서 개막

무등·광일리그 각 16개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10월 29일 결승전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가을 잔치'가 펼쳐진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9월 3일 광주일고야구장에서 개막해 두달간의 여정에 들어간다.

'명품' 사회인야구대회로 자리매김한 무등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뉘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은 오는 10월 29일 무등경기장에서 치러진다.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무등리그 16개팀과 광일리그 16개 팀은 벼랑 끝 승부를 벌이게 된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만

원이 돌아간다. 공동 3위 팀들은 상금 10만원을 받는다.

'가을 잔치'를 빛낸 선수들을 위한 개인 타이틀 시상도 준비됐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우수선수와 최우수심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지난해 무등리그 우승팀인 자연환경 유휴회사와 광일리그 챔피언인 카멋진팀 V-KOOL이 대회 2연패를 위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새로운 우승팀이 되기 위한 각 팀의 도전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경을 뛰어넘은 야구 사랑도 무등기 열기를 더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인들이 모여 만든 '다국적팀' 광주 폭격기가 무등기에 처음 출격한다.

9월 3일 무등리그 8강에 오를 팀들이 먼저 가려진다.

오전 9시 로즈스나이퍼스와 광주 버스타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 타요바리스타즈가 무등리그 8강 티켓을 다툰다. 이어 금호 허리케인과 참단고은미래의원 페가수스의 '빅매치'가 펼쳐진다. 무등기 정상에 올라봤던 챔피언들이 1회전부터 세계 불는다. 사실상의 무등리그 결승전무대로 꼽힌다.

마리 보는 결승전이 끝난 뒤에는 청영클라이즈와 패밀리가 개막 첫날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또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동참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광주일고 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 야구대회 무등토너먼트 로즈스나이퍼스와 광주제약 어스의 경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리그

◇GN Rebirth(대표 박대업)
올해로 창단 8년째를 맞는 팀이다. 야구 열정과 팀워크로 똘똘 이튼들의 가을 잔치가 시작된다.

▲감독: 박대업 ▲선수: 이건웅 문천식 임형택 김선룡 이장근 노건영 박건후 장대성 조준 최준 안종훈 오성하 한상우 유현상 홍은성 김상덕 지대영 박종철 윤성용 광기문 임태영 이은오
◇광주 폭격기(대표 최병은)
국경을 넘은 야구 사랑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다국적 팀이다. 다른 야구 환경 속에서 하나로 뭉쳐 무등기를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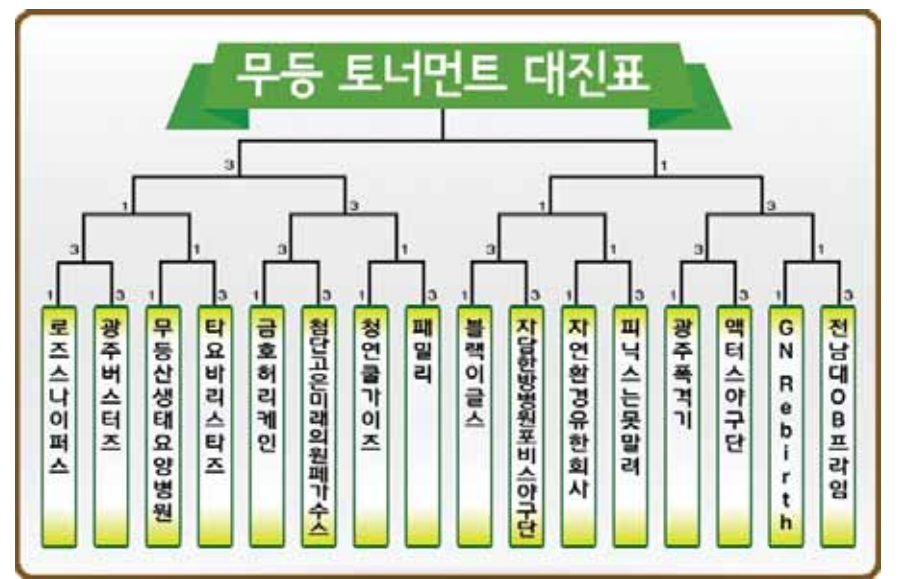
▲감독: 로버트 스프라울(Robert Spr-oule) ▲선수: 재키 최(Daniel Choi) 다니엘 최(Daniel Choi) 대릴 슬레이터(Darrell Slater) 리안 맥클라우드(Ian McCloud) 제프리 해밀턴(Jeffrey Hamilton) 저스틴 건-테일러(Justin Gunn-Taylor) 스티브 알렉산더(Steve Alexander) 대린 롱스타프(Darrin Long staff) 로버트 스미스(Robert Smith) 맷 라나(Matt Rana) 지미 해리스(Jimmy Harris) 지오반니 피에베(Giovanni Pieve) 랜달 스감마(Randall Sgamma) 제임스 휘탈(James Rydahl) 레미 워런(Remy Warren) 조쉬 가르시아(Josh Garcia) 존 햄백커(Jon Hambacker) 후안 지아(Juan Zea)

◇광주 버스타츠(대표 박동훈)
버스타츠라는 이름으로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변함없는 야구 사랑과 열정으로 그라운드에서 또 다른 시간을 써 내려간다.
▲감독: 박동훈 ▲선수: 이철진 김영근 김현호 최성일 정대훈 변기민 정가별 문도선 황인규 박준 서영준 배광석 박승용 노호석 신홍의 박준규

◇금호허리케인(대표 고남석)
2015년 무등기 정상에서 환호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다시 한번 우승의 영광을 누리기에 무등기에 출사표를 던졌다.
▲감독: 고남석 ▲선수: 최용석 강진혁 고남석 이종진 이종현 조상식 주기환 이유현 이정현 정재규 김기철 김상엽 고진석 강성기 노진성 박현철 김승우 차현민 송민식 선석진 김선일 김종원

◇로즈스나이퍼스(대표 김진호)
2010년 창단하여 광주베이스볼리그 소속으로 뛰며 야구 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무등기 정상에 겨냥한다.
▲감독: 김진호 ▲총무: 윤현호 ▲선수: 송창섭 김대현 박성술 김홍립 최상호 박성경 최희규 박진석 김태권 이강은 정준도 정승철 한용희 기호준 김준형 이승환 김광호

◇무등산생태요양병원(대표 윤상연)
무등산생태요양병원 후원으로 2010년 첫발을 내딛고 무등기 2연패를 이뤘다.
▲감독: 전용환 ▲경기이사: 윤상연 ▲선수: 김선도 박종산 오승철 양동화 이범석 이대수 홍상진 김종원 이동협 김태용 안용석 정선호 엄석준 류승용 오은상 김호 김태민 배남아 이대호 채문기 배서



◇블랙이글스(대표 이광석)
야구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매 경기 웃음을 잃지 않으며 함께하는 야구! 즐거운 야구! 내·외면이 아름다운 야구를 꿈꾼다.
▲감독: 민병돈 ▲고문: 안재형 ▲감독: 이광석 ▲코치: 이민욱 ▲총무: 김성주 ▲주장: 문형건 ▲선수: 김훈희 나보현 서영근 조연의 정혁수 전세현 장태호 이정훈 윤제민 이병훈 송원진 이수훈 김민수 김산

◇액터스야구단(대표 박보현)
15년의 시간이 실력으로 쌓였다. 매년 플레이오프 4강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광주시장기와 연합회장기 우승도 이뤘다. 이번엔 무등기 정상을 노린다.
▲감독: 박보현 ▲코치: 김영환 ▲선수: 강호영 김경진 김광연 김영민 김영필 강호호 김현창 김훈 봉준희 신성식 유호진 이경훈 이명성 이재열 조홍찬 차봉욱 최현호 홍석 박보근 문종준

◇자명한방병원 포비스 야구단(대표 정영수)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화순 야구연합회 일요리그 메이저리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팀워크'가 가을 잔치를 즐기겠다는 각오다.
▲감독: 정영수 ▲총무: 손재근 ▲선수: 김진형 김상수 광현희 최양섭 김성수 이진영 최창식 김병조 송동화 주기서 주민수 손영생 김현호 국민 국준 윤성근 임효석 강도현 양하성 오승영 김기정

◇자연환경 유휴회사(대표 백규식)
페가말의 안전한 처리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환경을 책임지는 자연환경(유). 그라운드에서는 푹푹뭉쳐 승리를 책임진다. 무등기 우승을 했고 연패에 도전한다.
▲감독: 백규식 ▲감독: 정상현 ▲코치: 김기동 양건우 ▲선수: 김동후 김만철 남준성 류영광 박래준 박병오 박철준 서재근 신경수 윤여은 조준오 최원민 최용희 최명환 최정재 박남필 선주원 박경중 유진우

◇전남대OB프라이머(대표 이지호)
전남대 졸업생들이 2012년 팀을 만들었다. 모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함께 뛰는 야구를 목표로 한다.
▲감독: 이지호 ▲선수: 김진오 박형기 임시범 윤영익 박광일 이정화 위진욱 이덕명 김성부 김중훈 김대영 이진욱 김

승현 조지훈 박경남 이상석 조수영 권지량 고준형 윤영진 이재형 김장렬
◇참단고은미래의원 페가수스(대표 임창일)
2003년 페가수스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그라운드를 질주하고 있다. 오랜 역사에 실력까지 갖춘 명문 팀으로 현재 팀베이스볼리그 1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감독: 김성우 ▲감독: 임창일 ▲선수: 안용순 정종필 안범모 이석우 김영학 김희욱 남정우 박상태 염원섭 김경표 정대용 우민철 김상호 장세현 이준 고관보 김영기 주창호 서진영 김일완 장광익 박근영 임호성 오광석 손우광

◇청영클라이즈(단장 지민석)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원한 팀. 야구에 대한 팀원들의 열정은 뜨겁다.
▲감독: 이준식 ▲선수: 정기재 김성도 민성용 박병석 이우진 지민석 조병진 설상일 김재우 송광준 김영주 김현성 심재원 김병호 김갑진 김상록 김규호

◇타요바리스타즈(대표 박주용)
TAYO cafe 후원 속에 30명의 선수들이 토요 합동리그와 일요 팀베이스볼리그를 뛰고 있다. 지난해 어렵게 준우승에서 멈췄다. 이번 가을 우승을 꿈꾼다.
▲감독: 정영진 ▲선수: 정기재 김재욱 장광우 서동훈 오지훈 이용훈 박주용 조진준 조환민 홍석주 한승현 홍준영 유인식 주철우 이기남 이보람 위동철 김동인 천재용 김진원 김대호 조양성

◇패밀리(대표 정기중)
이름처럼 야구로 모인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라운드에서만은 한 치 양보 없는 플레이를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감독: 기현호 ▲감독: 정기중 ▲선수: 안기중 권관중 방영환 이영국 구태홍 문주영 송경진 엄종열 송판기 정민호 최인석 박영환 김병균 장덕진 김진욱 이진욱 김형선 이영준 엄기선

◇피닉스는 못말려(대표 김진성)
야구가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야구팀을 만들었다. 올 시즌 창단된 신생팀! 우정으로 똘똘 이튼들이 신생팀다운 패기로 무등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감독: 김진성 ▲선수: 김민재 김동규 류명훈 문정민 박대진 염기백 이수진 임중민 임중관 정지환 조현상 최형욱 한성민 황규성

광일리그

◇MK 한방병원 (대표 노성록)
야구라는 공통분모로 모여서 보낸 시간이 벌써 7년이다. 탄탄한 팀워크와 실력으로 무등기 정상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감독: 노성록 ▲감독: 박현석 ▲선수: 전봉현 박현석 박성규 안준이 한상용 조형철 이영주 정호태 조호현 이용희 정원신 진성근 강승진 이왕주 오수록 손주준 박준일 황석진 이영석 윤서진
◇W웨딩컨벤션(대표 송승렬)
야구가 좋아서 2009년 쓰니머 팀으로 그라운드에서 처음 울렸다. 광산리그 소속으로 뛰면서 야구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다.

▲감독: 박선주 ▲총무: 김민수 ▲선수: 김봉민 정승환 송승렬 오광현 서정길 박성용 오병용 김윤찬 방민택 양준태 이승훈 오경환 양민준 박경민
◇광주 레인보우(대표 정광진)
2007년 시작된 야구놀이, 2008년부터 정식 유니폼을 입고 토요일리그에서 뛰고 있다. 실력도 실적이지만 즐기는 야구 재미있는 경기를 추구한다.

▲감독: 정광진 ▲선수: 이권 하광철 지정근 임재영 최현영 진보석 박창현 김장준 양대구 김병중 민승기 구현 송민준 안정대 오상민 오훈호 이철진 나상래 강동구 황동현 차지오 김수용
◇뉴욕아시장 야구단(대표 김관현)
금호동 '뉴욕아시장'의 지열 속에 광주 탐베이스볼 일요리그에서 뛰고 있다. 야구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이들의 유쾌한 도전이다.

▲감독: 박용주 ▲총무: 김관현 ▲선수: 정상백 김상규 손승우 김영선 백경태 정은성 이근욱 김영준 안대근 정재원 김성훈 류진 권현준 이동훈 조지훈 최재현 기양서 윤가람
◇레드 워리어스(대표 박찬모)
2003년도에 광주워리어스야구단으로 창단한 오랜 역사의 팀이다. 'We are one'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즐기는 야구를 외치며 역사를 잊고 있다.

▲감독: 박찬모 ▲코치: 최승환 ▲선수: 박상선 박재석 서상현 문인국 서환진 김민영 박운상 김동현 김용원 장병찬 이기민 이승환 최재용
◇송원블루제이스야구단(대표 박재형)
'송원대학교야구부'를 응원하는 송원대학교 직원과 학생 그리고 관련 업체직원이 아우러졌다. 사회 봉사활동도 펼치는 '인생도, 사랑도 야구도 모두 만루홈런'을 외치는 이들의 1승 도전기.

▲감독: 박재형 ▲감독: 선중석 ▲코치: 김대균 ▲총무: 오광열 ▲선수: 김중환 강병선 노훈서 서성현 오지형 윤자근 이기행 윤종재 정광현 정용진 정준호 정성현 최민우 김학관 황상운 이병희 박시훈 강성로
◇쏘울스토리(대표 윤정승)
야구가 좋아서 한데 모였다. 야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뭉쳐 만든 '쏘울스토리'의 느낌 있는 무등기 무대가 펼쳐진다.
▲감독: 윤정승 ▲선수: 김윤원 김용

광일 토너먼트 대진표



수 박영서 박인철 이동혁 박용모 임진강 손동환 심민기 민진기 이광훈 이기홍 임진우 임현규 정준섭 유재민 김윤학 양진갑
◇안타처블(대표 김희형)
'야생야사'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사나이들이 젊음과 패기로 푹푹 뭉쳤다. 이들의 3번째 무등기. 젊음, 패기, 열정을 다 아아몬드 그라운드 안에서 마음껏 펼쳐 보겠다는 각오다.

▲감독: 김희형 ▲총무: 김일운 ▲선수: 광현호 김국민 김동영 김민주 김재용 박선열 노우승 박진원 김현수 양요섭 정태성 정준영 정승민 정승원 정원규 정인기 최태양 한승협 황준영
◇어벤저스(대표 정지원)
창단한지 1년도 안된 신생팀의 당찬 도전 무대. 광주빛고을베이스볼 리그에서 뛰며 갈고 닦은 실력으로 '형님들'과 맞선다.

▲감독: 정지원 ▲선수: 김용천 이종훈 윤경욱 김지현 김동현 김동혁 박정기 김용규 김형섭 이병배 이준휘 신종호 정진원 김경인 권홍중 고광진 송승용 김기운 정민기 서명중 한상훈 조성현
◇에슬레틱스(대표 김경태)
2003년 광주 엔터 아홉으로 출발해 2012년부터 화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랜 전통과 역사의 명문팀이다. 실력과 팀의 매너 있는 경기가 펼쳐진다.

▲감독: 김경태 ▲코치: 이성준 안재원 이상현 정철안 손승우 최주성 이승윤 이형석 류세환 서기선 정진수 이석원 박원식 오병호 선영수 김형우
◇에프나인(F9·대표 진용우)
'F9 하이트잠이슬'의 무등기 3연 4타. 지난해 리그 우승, 고창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정정당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무등기 우승컵을 노리고 있다.

▲감독: 진용우 ▲코치: 노요한 ▲총무: 문용남 ▲선수: 조준영 강대철 김승주 허욱 박종현 오규종 임동일 조영오 진성수 조정훈 박진우 정기준 기민규 이경훈 최용석 노경천 장봉현 오정민 전우상 이승윤
◇정진산업스카이하구단(대표 조승현)
야구라는 이름으로,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시간을 보냈다. 오랜 역사를 지

닌 팀 다운 팀워크와 노련함으로 가을 무대를 누린다.
▲감독: 조승현 ▲감독: 우해동 ▲감독: 박창균 ▲코치: 김태호 ▲총무: 이권 ▲선수: 정재오 오영의 최병훈 김준석 심정진 강기철 조경영 김세근 정준섭 이근식 신백호 최승훈 노영주 최홍준 원태현
◇카멋진 V-KOOL(대표 신주열)
'디펜딩 챔피언'이 또 다른 추억과 우승 순간을 꿈꾼다. 야구에 열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3년 차. 매너는 물론 지난해 무등기 광일리그 우승팀이라는 실력도 갖췄다.

▲감독: 신주열 ▲선수: 정성민 최정상 김강민 정호영 주영환 주민호 김희동 공명규 김년수 국범석 조영오 윤명훈 탁홍석 김용준 이형수 조명운 정종남 김용선 박상신 김기서
◇파죽지세(대표 이세준)
야구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야구광들이 모였다. 20~50대라는 다양한 나이, 야구에 대한 열정은 하나다. 순수 야마추어 사회인 야구인들이 불사르는 열정의 무대가 펼쳐진다.

▲감독: 이세준 ▲총무: 이승현 ▲선수: 최지호 손세민 신만철 박종필 김현철 정장희 김정훈 장덕진 이근욱 반재희 김세현 유재현 허경훈 김건오 이신영 양민용
◇하나로야구단(대표 윤영웅)
담양 야구 연합회 소속으로 매주 일요일 신나는 필수를 하고 있다. 나이 불문, 야구 열정으로 7년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매 게임 최선을 다해 치고, 달린다.

▲감독: 윤영웅 ▲선수: 윤여진 임우중 박민혁 조강수 노세일 심현보 전우상 노충현 김준하 윤용현 문원일 박현민 강종호 도기성 전은철 박용우 권찬 박재홍 서후 황경인 최창식 문경환
◇화이트워리어스(대표 김진혁)
지난 2003년 광주워리어스야구단으로 출발해 즐거운 야구를 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세계의 야구팀과의 교류를 위해 무등기 출사표를 던졌다.

▲감독: 김진혁 ▲선수: 신수권 김병희 민태호 나재현 노재기 서현철 김도환 김동욱 양금승 양재서 박진국 서명석 김경준 김원철 나우리 조영태